

주요대 자연계 ‘확통’ 허용… 미적분·기하 선택 첫 30%대

〈확률과 통계〉

종로학원, 본수능 35% 안팎 전망
6월 모평 34.8% 전년비 8.8%p ↓
10개대 중 9곳 자연계 확통 허용
학습 부담에 미적분·기하 이탈 가속
심화수학 학습 격차 확대 가능성
2028학년도 수학 선택과목 폐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이 35% 안팎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수능 도입 이후 미적분·기하 선택률이 30%대로 내려가는 것은 처음이다.

주요 대학들이 자연계열 지원자에게 확률과 통계 선택을 허용하면서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큰 미적분·기하 대신 확률과 통계를 택하는 수험생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에서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은 지난해보다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미적분·기하 선택자는 전체 수학 영역 응시자의 31.6%로 지난해 같은 시험(40.5%)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날인 4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뉴스시스

다 8.9%p(포인트) 낮아졌다. 5월에도 32.2%로 전년(41.0%)보다 8.8%p 떨어졌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6월 모의평가에서도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은 34.8%에 그쳤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의 43.6%와 비교하면 8.8%p 낮다.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역시 34.8%로 지난해(41.3%)보다 6.5%p 하락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11월 본수능에서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은 35% 안팎에 머물 것으로 종로학원은 예상했다.

통합수능 도입 이후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은 한때 전체 수험생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2학년도 48.3%에서 2023학년도 51.8%, 2024학년도에는 54.9%까지 상승했다. 2026학년도 43.9%로 급락한 데 이어 올해는 35%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대로라면 불과 3년 만에 약 20%p 감소하는 셈이다.

미적분과 기하는 통상 자연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주로 선택해온 과목이다. 과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 가운데 8곳이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 시 미적분이나 기하를 사실상 필수 선택과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025·2026학년도 대입을 거치며 이 같은 지정과목이 잇따라 폐지됐다. 현재 주요 10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은 자연계열에 지원할 때 수능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다.

대학들의 전형 방식 변화가 수험생의 과목 선택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연계 수험생들이 학습량과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적분·기하 대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대입에서는 같은 자연계열 지원자 사이에서도 고교 수학 심화 과목 학습 수준의 편차가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대학들이 지원자의 수학 교과목 이수 내용과

성취도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올해 본수능에서는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이 통합수능 도입 이후 처음으로 30%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 대표는 “자연계 지원자 가운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크게 늘어나면 과거와 비교해 수험생 간 심화수학 학습 수준의 편차도 커질 수 있다”며 “대학 입장에서 수시 학생부 평가 과정에서 지원자가 고교에서 어떤 수학 과목을 이수했고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을 앞두고 더욱 주목된다. 2027학년도에는 현행 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이다. 2028학년도부터 수능 수학의 선택과목은 폐지되고 모든 수험생이 대수·미적분 I·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응시한다.

한편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파주시, 공공·AI 데이터 수요조사

내달 10일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신규 데이터 개방·정책수립 활용

파주시가 지난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공데이터 만족도 및 인공지능 친화 데이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파주시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학생과 개발자, 기업 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현재 공개된 데이터의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확인하고 인공지능 학습과 신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는 파주시청 누리집 팝업존에서 ‘공공데이터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선택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사 안내문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참여할

수도 있다.

파주시는 현재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문자와 이미지, 동영상 등 공공기관이 생성·관리하는 데이터 251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주요 교차로별 교통량 패턴’ 등 33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올해 접수한 국민과 기업의 의견도 신규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장호성 파주시 AI정책관은 “시민과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조사해 파주시 특성을 반영한 AI 친화형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최신 자료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사이버한국외대, 카트만두대 학술교류 확대

공동연구·교원·학생 교류 추진
교육·학술자료와 연구정보 공유
온라인 기반 한국학 협력 확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문희창)가 नेपाल 카트만두대학교와 공동연구와 교원·학생 교류를 추진한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14일 교내에서 카트만두대와 교육·학술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상호 관심 분야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교육·연구를 위한 교원 교류 △교육·학술·연구자료 및 정보 교환 △학술·연구를 위한 학생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카트만두대는 1991년 설립된 नेपाल의 고



(왼쪽부터)우다브 파쿠렐 카트만두대학교 인문대학장, 우측 문희창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사이버한국외대

등교육기관으로 인문·사회, 경영, 교육, 공학, 법학, 의학, 과학 분야의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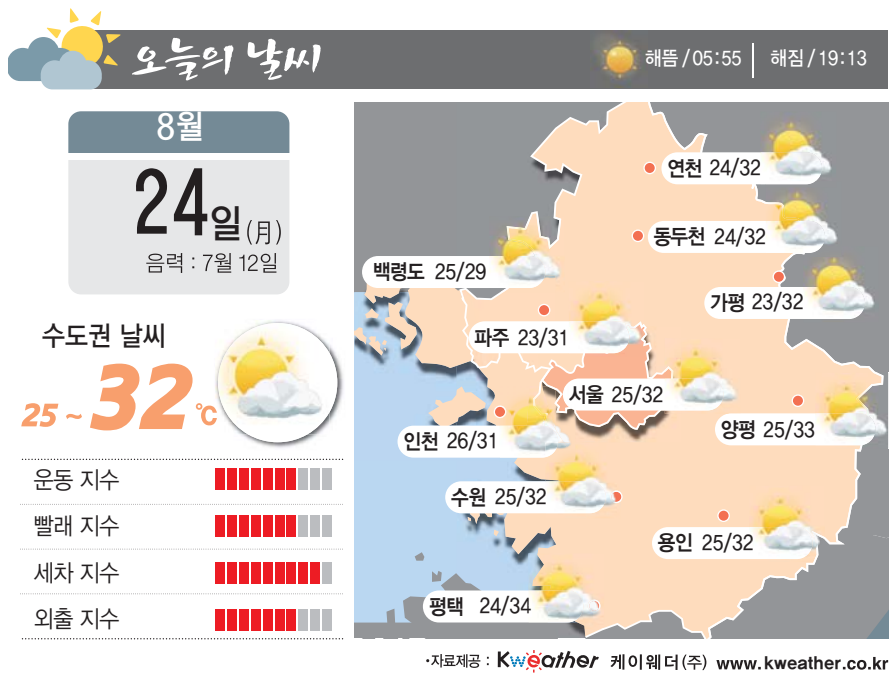
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문학부에 ‘한국학(언어·비즈니스) 학사과정’을 개설했다.

협약식에는 문희창 사이버한국외대 총장과 김병철 학장, 원종민 글로벌 교육원장, 윤호숙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카트만두대에서는 우다브 파쿠렐 인문학부 학장과 니비라즈 카플레 한국학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참석했다.

문희창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은 “카트만두대가 한국학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며 “온라인 교육 기반을 활용해 नेपाल 현지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 착공

사업기간 6년서 4년6개월로 단축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 추가 선정

서울시가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약 6년에서 4년6개월로 줄이고, 2030년까지 신규 후보지 100곳을 추가 선정해 1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을 집중관리와 일반관리 대상으로 나눠 공정을 관리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달 열어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는 건축·정비·법률·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에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해 관리계획을 1년 안에 수립하고,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

간을 약 1년6개월 단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 대상 후보지를 2030년까지 100곳 선정해 추가 1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토지 등 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다음 달 초 발표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검증체계도 도입한다. 조례에 공사비 검증 근거를 마련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인도양에서 싱가포르행 파나마 화물선 침몰, 인도해경 발표
▲전쟁 6개월, 이란 민생 붕괴… 일자리 100만개 증발 /사진 뉴스시스

▲푸틴 “우크라이나 경제공격, ‘판도라 상자’ 열어… 파괴적 보복”
▲캐나다 “美 철강·유제품·종이 등에 ‘달러대 달러’ 보복관세”

▲일본 이바라키현서 규모 5.9 지진… 최소 17명 부상
▲중국, 남중국해서 잇단 군사활동·실탄사격… 항행 금지